

전문정보의 통합센터로서의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고 영 만

1. 서론

오늘날처럼 전문정보의 양이 빠르게 늘어난 적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전문정보는 약 5년만에 두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의 출간물들은 매일 약 2만건 이상씩 발표되고 있다.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긴급하게 읽어야 할 복사물, 웹프린트물, 전자메일 첨부문서 등의 문서더미와 마주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올바른 정책 결정은 전문분야의 지식들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IT 기술은 전문분야의 여러 연구기관 및 정보서비스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전문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의 연결점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전문정보의 가공·유통·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과학기술 분야, 교육학술 분야, 인문 분야, 경제 분야의 연구기관과 정보서비스기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체의 구축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같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국회도서관이 취해야 할 발전전략을 전문정보센터의 통합적 구심체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국회도서관의 역할 정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적 주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분담 및 국회도서관과 타 전문정보서비스기관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 역시 국회도서관의 역할 문제를 다루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을 조망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 글의 전제이자 제한점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문헌과 문서들을 저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국회도서관은 전문분야 지식의 축적과 서비스의 중심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전문정보 서비스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전개될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 전문정보센터의 통합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들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점이다.

2. 정보사회의 패러독스와 전문정보센터

정보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본질적 주제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행동관련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규정은 “공적·사적 영역 및 경제·행정·정치 행위에 있어서 정보 또는 지식이 중심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의 중심에는 정보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IT로 일컬어지는 총체적 정보기술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심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정보사회에서 IT 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 중 하나는 정보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지식의 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사실에 병행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사회 초창기부터 논의되었던 역설적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의 패러독스 현상을 심도있게 분석할 경우 ‘전문정보 통합체로서의 국회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대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회의 패러독스

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정보적 영향력 면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사회의 초창기 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정보의 사용 효과가 더 이상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 주장에 동의할 경우 정보라는 것은 기업 간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정보 부국과 빈국의 차이도 없을 것이며 정보의 부족이 앞으로 전개될 차별성의 근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정보의 사용과 이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은 더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보문제에서 나타나는 보다 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기회의 패러독스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부양책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정보의 기본 공급체계는 제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의 사용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문제와 이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의 차별적 적용 문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기회의 패러독스 현상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해야 하고, 국회도서관은 전문정보 분야의 지식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경쟁적 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의 소모적 역할 분담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지식의 패러독스

학술적 지식은 근대 사회의 일상생활을 형성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 지식의 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술적 지식을 위시한 인류 전체의 전문적 지식이 급속하게 팽창되었다. 그러나 지식의 팽창은 그 절대량 및 질적인 면에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 개관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식의 결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세부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개괄과 이해가 불충분하여 생산된 지식들을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생산된 수많은 지식을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화 현상과 동시에 지식의 결핍이 공존하는 지식의 위기, 이른바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패러독스(모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정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결핍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 정보의 패러독스

정보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것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정보가 많을수록 보다 나은 선택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찾게 될 경우 원래의 위험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새로운 부담까지 추가된다.

정보는 또한 상당부분 불확실성의 감소와 관계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정보로 제공됨에 따라 정보사회는 오히려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요구, 즉 정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모순을 낳는다.

그러나 '문제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부담의 축소 및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순환성이다.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방법론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 복잡한 작업 자체가 더 복잡한 정보 문제를 형성시켜 가는 순환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패러독스는 전문정보 센터들의 통합체가 구축해야 하는 정보의 가공·유통·서비스 체계가 표준화 문제와 이용자 측면을 얼마나 세밀하게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시자라 할 수 있다.

■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과 더불어 오늘날의 정보 가공 및 유통체계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초창기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정보 이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보

기술의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T 기술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될수록 이 정보의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이 발전할수록 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더 모르게 되며, 정보기술의 패러독스는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이 점점 더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은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의 수행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은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들이 원저작물로 연결하는 길을 개방함으로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검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원저작물로부터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게 가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는 IT 사회에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결해야 할 정보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공공성 문제에 대한 통제 매카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전문정보 인프라의 필요성

■ 전문정보와 전문정보센터

전문정보는 전문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며, 이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Scientific, Techn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Specialized/Specific Information”, “Professional Inform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정보는 오늘날 학술, 기술, 경제 및 기타 전문분야의 정보를 포괄한다.

정보센터란 지역적, 조직적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보처리 업무를 행하며, 스스로의 정보가공 능력이 없는 특정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그들의 질문이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정보센터란 “하나의 또는 유사한 다수의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국내의 전문정보 인프라

2000년 시행된 국가지식정보관리 사업을 통해 국내의 전문정보 인프라 구축 방향을 살펴 볼 경우 대략 교육학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 역사 분야, 문화 분야로 나뉘어진다. 교육학술 분야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 분야의 경우 아직 그 분야를 대표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 없으며 사회과학, 법률,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정보 인프라는 아직 구축되

어 있지 않다.

■ 해외의 전문정보 인프라

일본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구 NACSIS)를 들 수 있다. 일본의 NII는 문부성 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NII가 전문학술정보 시스템 운영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처리센터 및 국립대학 공동이용기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NII가 관리하는 전문학술정보의 대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체능분야를 모두 포함하며, NII와 연결된 전문학술정보 기관은 일차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직접처리기관과 연구자들 스스로가 형성한 미공개 전문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거점기관의 둘로 나뉜다. 이용자는 전문학술정보 직접처리기관 및 정보처리 거점기관에 접근하여 전문학술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대학 도서관의 정보검색 창구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국가주도형에 대립되는 예로서 처음에는 비영리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상업적 기관으로 전환한 미국의 OCLC를 들 수 있다. OCLC는 자발적 가입기관들의 연합체 성격을 띄고 있으며, 전문정보센터를 인위적으로 지정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는다. OCLC의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은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회사, 연구소 등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체계이다. OCLC는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제작회사, 출판사, 신문사 등에 의해 제작된 전문정보 외에 대학연구기관, 국립(전문)도서관, 국립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등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학술분야의 메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OCLC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OCLC는 주로 도서관의 서지정보 사업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일본의 NII, 미국의 OCLC와는 달리 모든 전문정보 분야의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는 독일의 I&D 프로그램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gr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과학기술처(BMFT) 주관으로 1975년부터 약 6억마르크(약 4000억원)가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당시의 기술 수준, 표준화 문제 및 연방과 주 차원의 재정지원 문제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I&D 프로그램 계획과 실패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전문정보센터의 통합체로서 국회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하고 또 선택해야 할 방식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D 프로그램의 조직 체계

I&D 프로그램의 구상은 독일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정보센터 등을 전문정보시스템으로 묶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6개의 분야별 전문정보센터

(Fachinformationszentrum : FIZ)와 4개의 특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통괄기구로서 정보도큐멘테이션협회 (GID : Gesellschaft für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를 운영하였다. 각 전문정보센터는 공유형 분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 해당분야의 Union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GID는 전문정보센터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상부기관으로서 전문정보센터들의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연구 및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다. 운영 재정은 연방정부가 65%, 지방정부가 35%를 부담하였으며, 협회의 발전목표는 경제성 확보,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전문정보센터들의 관리 및 이들의 조화 촉진에 두었다. 협회의 조직은 이사회 (최고기관으로서 총체적 목표설정, 연구정책, 재정문제 등을 결정), 학술국장과 사무국장(이원화된 경영 책임자로서 업무 프로그램 결정, 부서 설치, 부서장 임면, 경제/재정 문제를 관할), 총회 및 학술/기술위원회(기타 감독 및 자문 기능 조직)로 구성되었다. 또한 GID는 독립적 또는 다른 산하단체로서 활동하던 연구소 및 기관들을 흡수하여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산하기구를 두었다.

- 정보기관연구소 (IDW : Institut für Dokumentationswesen)
- 중앙정보처리센터 (ZMD : Zentralstelle für maschinelle Dokumentation)
- 시스템연구회 (SIS : Studiengruppe für Dokumentation e.V., Heidelberg)
- 교육연구소 (LID : Lehrinstitut für Dokumentation in der DGD)
- 정보학정보센터 (ZDOK : Dokumentationszentrum für Informationswissenschaften in der DGD)

▪ I&D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성

전문정보센터의 시스템 구상은 16개의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와 4개의 특수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각 센터는 해당분야의 자료를 총괄적으로 수집하는 중앙전문도서관, 해당분야의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 및 번역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 전문정보시스템 (16개 분야) : ① 식품/농업/임업 ② 화학 ③ 건강/의학/생물/스포츠 ④ 에너지/물리/수학 ⑤ 야금학/재료/금속 ⑥ 원자재/지질학 ⑦ 교통 ⑧ 조경/건축/토목/도시계획 ⑨ 전자/세공학/자동차/기계 ⑩ 소비재 ⑪ 경제 ⑫ 법 ⑬ 교육 ⑭ 사회과학 ⑮ 인문과학 ⑯ 외국학
- 특수정보시스템 (4개 분야) : ①특허 정보 ② 연구프로젝트 정보 ③ 환경 정보 ④ 기술 규정집 정보

▪ 협회(GID)와 전문정보센터(FIZ)의 기능 및 서비스

협회(GID)는 전문정보센터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응용연구 및 개발, 중앙 정보서비스센터, 전문정보센터 관리자 교육,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문정보센터의 구축 및 기획 참여, 프로그램 추진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발주 및 관리, 전문정보센터들 간의 연결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유지, 국제적 과제 수행 및 이를 위한 국제사무국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문정보센터(FIZ)는 해당 문헌과 데이터에 관한 검색 및 정기적 정보제공, 정보분석과 참고저작물 및 진행 보고서 간행, 비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 협회와 관공서 및 전문분야 연구소에 관한 정보 제공, 연구 프로젝트의 정보 처리, 문헌 조달, 비출간물의 수집, 외국과의 협력,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관한 정기적 분석, 문헌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및 내용적 처리와 번역, 중앙집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당 전문분야에 적절한 정보처리에 관한 연구개발, 해당 전문분야에 적합한 관리교육 및 이용자 교육을 담당하였다.

▪ 서비스 이용방식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정보센터에 접근 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중기적으로는 전문정보센터와 연결된 전문정보서비스 기관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별 또는 분야별 정보중계기관(예, 각종 도서관)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I&D 프로그램의 결과

I&D 프로그램은 16개의 전문정보센터를 계획하였으나 5개만 계획대로 구축되었으며, 오늘날 제대로 가동되는 전문정보센터는 STN으로 발전한 FIZ Karlsruhe 하나이다. 독일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GID를 전산협회(GMD)에 편입시켰으며, 전문정보서비스 분야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펴 왔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정보센터 및 대학도서관 등은 공공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인 “Information als Rohstoff für Innovation”을 1996년 8월 각의에서 의결하여 추진하였다.

▪ I&D 프로그램의 실패 원인

- 기술적 측면 : 당시의 기술적 수준(특히 컴퓨터 용량 문제)에서는 공유형 분담 목록을 토대로 하는 Union DB의 구축이 적합하지 않았다.
- 표준화 측면 : 특히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정보처리 환경에서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 (최소한의 표준적 규칙을 벗어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이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 재정적 측면 : 당시의 수준에서 총 4,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연방과 주에서 부담하는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문제에 의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4. 전문정보 통합센터로서의 국회도서관에 대한 전망

이 글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전문정보의 통합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

은 정보사회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시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국회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은 국내외의 전문정보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보사회 내지는 IT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심화되고 있는 기회의 패러독스, 지식의 패러독스, 정보의 패러독스,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회도서관이 전문정보의 통합센터로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를 추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회의 패러독스 현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일반적 지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국회도서관은 국가차원의 경쟁적 우위요소 확보를 위한 전문정보 분야의 지식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식의 패러독스 현상으로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은 전문정보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관에 있어서 표준화와 이용자 측면에서의 고려가 지니는 기술적 중요성을 제시하며,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또한 전문정보 통합센터로서의 국회도서관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공공성 문제의 통제 메카니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전문정보 인프라를 살펴 볼 경우 교육학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정보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률, 경제 등의 분야를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 전체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없으며, 지금까지 구축된 전문 분야별 정보센터의 통합적 관리체계 역시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회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발전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학술 분야의 전문정보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회도서관에는 특히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정보 통합센터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의 전문정보 인프라 구축 사례 중 독일의 경우는 국회도서관이 전문정보의 통합센터로서 기능을 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에 해당한다. 비록 독일의 I&D 프로그램이 정치적 환경에 따른 재정지원의 문제점과 당시의 불충분했던 기술수준에 의해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오늘날의 기술 수준에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이 이를 담당할 경우 국내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기원, 고영만, 이은철 (1997). 전문정보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첨단학술정보센터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BMBF (1996). Information als Rohstoff für Innovation. 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996-2000. Bonn ; BMBF Pressedokumentation.
- Federal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1976). The Programme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1974-1977. Berlin ; Institute for Documentation
- Gesprächskreis Informatik. 1999. Informationskultur für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 Anforderungen an Politik, Wirtschaft,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Berlin : BMBF
- Kuhlen, Rainer. 2000. Informationelle Bildung - Informationelle Kompetenz - Informationelle Autonomie. Vortrag 15. Nov. 2000 auf dem "dies academicus" der Technischen Fachhochschule Berlin 15. Nov. 2000
- Wersig, Gernot. 1998. Knowledge Communication as a Postmodern Phenomen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Science without Frontiers Wissenschaft, Medien, Oeffentlichkeit* . Sept.17, 1998.
- Wersig, Gernot. 2000. Perspektiv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fD 51 : 461-465